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5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맑은 기쁨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근본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자비(慈悲)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남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고통의 흔적
6. 선재등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일체지 수행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유리창 위의 새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5월 1일 발행, 통권 327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맑은 기쁨

저녁 예불을 마치고 앞마루로 나가다가 이제 막 떠오르는 열나홀 달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가, 앞산 마루 위로 떠오르는 둥근 달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뇌이면서 두 손을 마주 모았다. 여름날 해거름에 더욱 부드럽고 아련하게 보이는 앞산 능선 위로 떠오르는 달은 사뭇 환상적이다. 우리네 고전적인 표현에 달덩이같이 예쁜 얼굴이란 말이 있는데, 소박하면서도 적절한 묘사인 것 같다.

오랜만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니 그저 고맙고 기쁘다. 뒷숲에서 소쩍새가 온다. 산은 한층 이속해진다. 이런 때 나는 홀로 있음에 맑은 기쁨을 누린다.

억지소리 같지만, 홀로이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 사람만이 이웃이라. 청정한 나무들과 선한 새와 짐승들,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맑은 바람과 저 아래 골짜지에서 울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정다운 내 이웃일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웃들로 인해 살아가는 기쁨과 고마움을 누릴 때가 많다.

물론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몇억 불의 수익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이삼백 장의 연탄을 들여놓고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시골 우체국 집배원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 나라의 통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처럼 산골에 묻혀서 사는 덜된 사람들은 둘레의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삶과 잔잔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고무줄로 된 허리띠가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서 자꾸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성가셔 하다가, 어느 날 새 허리띠로 갈아 낀 다음의 그 든든함, 이것도 흥기분한 기쁨일 수 있다.

부엌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라 초토막을 녹여서 돌쩌귀에 바른 뒤부터는, 아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여닫히는 걸 보고 빙그레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 또한 내 조그마한 기쁨이다.

장마가 갠 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낫으로 베다가 풀썩에 가려진 커다란 호박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이거 웬 호박이냐는 경우도 살아가는 기쁨이다. 산 너머에서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를 듣고 뜰에 나가 비설거지를 하고 나자, 금세 까맣게 휘몰아 오는 소낙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생기에 차서 너울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일 또한 즐겁다.

복더위가 극성을 떠는 요즘 점심 공양 끝에 한소끔씩 낮잠을 잔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보원요寶元窯의 김기철 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준 도침陶枕을 베고 누워 있으면 맑은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는 딱딱해서 자꾸만 뒤척거렸는데, 길이 드니 시원한 그 맛에 폭신한 베개가 도리어 답답해졌다. 처음 박물관에서 도자기로 된 베개를 보고 옛사람들의 생활의 운치를 기리면서 부러워했는데, 시절 인연이 찾아와 조그만 그 소원이 내게도 이루어졌다. 도침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씻은 듯이 맑다. 이 또한 조출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불일의 지붕에는 많은 새들이 나와 함께 산다. 7년 전 이 암자를 다시 지을 때 연합椽檻 때문에 속이 좁았었다. 연합이란, 서까래 끝의 평교대 위에 기왓골을 받치기 위해 암키와가 놓일 만하게 반달 모양으로 에어 낸 나무를 말한다. 이 연합을 두고 목수와 와공이 서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결국 연장을 가진 목수가 파게 되었는데, 목재를 잘못 골라 기와와 연합 사이가 골마다 틈이 생겼다. 이 틈에 산새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주로 할미새와 박새가 산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군불을 지피러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새 새끼가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솜털이 보얀 박새 새끼였다. 새집에서 굴러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서둘러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안쓰러워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 입을 벌려 짹짹거리면서 나를 경계했다.

군불을 지피고 나서도 어린 새의 일에 마음이 쓰여 한쪽에 돌아서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미 새가 이따금씩 날벌레를 물어 와 새끼에게 먹이는데, 바로 먹이지 않고 몇 차례씩 입에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조금씩 나는 연습을 시켰다. 두 마리 새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를 꼬박 이틀을 하더니 마침내 비상飛翔, 새끼 새가 제 힘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도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크게 쉴 수가 있었다. 새들의 지극한 모성애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 주었다.

피꼬리, 삿갓, 소쩍새, 밀화부리 같은 철새들이 제철에 이르러 첫인사를 보내올 때, 그 설레는 반가움은 산에서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수첩에는 이런 일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마다 5월 초에 피꼬리와 삿갓은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찾

아온다. 그런데 금년에는 삿갓이 한 주일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하고 몹시 궁금했다. 5월 11일 차밭에서 차를 따다가 삿갓의 첫인사를 받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목청으로 밀화부리가 노래할 때 나는 곧잘 휘파람으로 화답을 해준다. 피꼬리도 휘파람으로 소리 해 주면 제 친구인가 해서 자꾸만 가까이 날아오면서 노래를 한다. 이 또한 살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요즘에는 토끼가 대숲과 모란밭 사이를 자주 뛰어다닌다. 토끼를 보면 <옹달샘> 노래가 내 귓전에 아직도 들린다. 재작년 어느 여름날 아침, 큰절에서 수련 중인 순천여상 학생들이 올라와 아침 이슬 같은 영롱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고 간 노래가 이 <옹달샘>이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렇다. 이 노래처럼 샘으로 물 마시러 오는 토끼를 볼 때가 더러 있다. 세수도 하는지 물만 먹고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무심한 짐승들과 같은 산속에서 산다는 것은 조출한 복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처마 끝에 외등처럼 걸려 있다. 잠든 숲에 시냇물 소리만 깨어 있다. 밤 시냇물 소리, 그것은 쉬지 않고 흐르는 세월의 소리이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긋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1982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근본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

성인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면서 가까이하면 우리들 자신이 그 빛 안에 살게 됩니다. 그만큼 덕을 입습니다. 그 교훈이 삶의 지표가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미루어,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대강 알았습니다.

다음은 근본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인도의 종교학자나 사상가들은 그들이 지닌 종교와 사상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종교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째, 희생·예배·고행 등으로 이루어진 종교, 이것은 의례(儀禮)의 도(道), 바라문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절대적 귀의에 의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종교, 이것은 신앙의 도, 기독교나 회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종교의 지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이것은 지혜의 도로서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지혜의 도로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곧잘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혹은 탐하고 성내고 싸우고 울고 웃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지혜를 일으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 마침내 자유의 경지에 이르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자비慈悲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사랑하는 체하거나, 혹은 까닭 없이 미워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까닭이 있어 미워하겠지만, 어쨌든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 책 속의 사연은 계속된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 자체가
이미 확신이므로
헤아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넘쳐흐려야 합니다.
그리고 넘쳐흐르는 것은 헤아릴 수도,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본시 넘쳐흐르는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헤아리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줄수록 넉넉해지는 마음이다. 주어도 주어도

더 못 주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기 받으려는 생각이 끼어들면 그것은 이미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예언자》에서 말한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사랑은 자기 자신밖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서밖에 아무것도 뺏는 것이 없다.

사랑은 소유하지도 않고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헤아리고 따지는 것은 장삿속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우리 옛 시조에도 있더라.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나더냐
길더냐 짧더냐 자로 쥘 수 있겠더냐
얼마나 긴지는 몰라도 애끓는 듯하더라.

날씨가 무더운 바람에 객소리가 길어졌다. 그러면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 보자. 주석서에 의하면, 부처님은 이 자비를 호주(呪: 보호해 주는 주문)로서도 설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문'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이 중얼중얼 외우는 다라니나 진언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주문이 진실한 말(眞言)이라면 그 뜻부터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어 외워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공덕이 된다고 하지만, 굳이 공덕을 따지기로 말하면, 뜻을 모르고 건성으로 외우기보다 뜻을 알고 그 뜻을 관하면서 외우는 편이 훨씬 공덕이 되어야 한다.

불타 석가모니의 이성적인 가르침에 비밀은 없다고 부처님 자신이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다. 다라니나 진언

에 어째서 뜻이 없단 말인가. 뜻 없는 소리를 무엇 때문에 경전에 수록했겠는가. 원어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진실한 말씀’의 뜻을 엉뚱하게 잘못 받아 들인 데서 온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런 자비의 선언이야말로 ‘진실한 말씀(眞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간 본위다. 그래서 소나 개돼지, 노루나 사슴 토끼 같은 짐승은 모두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냈다고 한다. 소나 개한테 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것도 없이 유목사회에서 나옴직한 가설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자비는 인간 본위가 아니라 생명 본위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一切衆生]은 생명의 큰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만약 산목숨을 해치거나 괴롭히면 큰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살계의 첫째는 불살생(不殺生)을 강조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因, 직접 원인)과

죽이는 연(緣, 간접 여진)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불살생계를 두고 이처럼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일찌기 어디에서도 본 바가 없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계(戒)는 타율적인 혹은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규범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자기 삶의 규범에 균열이 생긴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을뿐더러 한 걸음 나아가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것.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를 행하라고 한 것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그저 그렇고 그런 한낱 경전의 표현으로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비의 생활 규범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이 곧 자비로 충만해질 것이다.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런 생활 태도를 가리켜 숭고한 경지, 혹은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거기서 넉넉함을 알고,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될 수 있는 한 비본질적인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고 담백하게 한다. 보고 듣고 하는 감각이 안정되어 마음이 항상 평온하여 흐트러짐이 없다. 그리고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세간살이나 가재도구를 보고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내면은 이미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어 더 채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세간적인 갈등이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 경전은 끝을 맺고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남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묘미가 있는 말이에요. 뜻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데 뜻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라고 하니깐 고개가 가웃해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탈 없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더러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집안에나 갈등이 있어요. 자식들이 다 효자면 좋겠지만 그런 집안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묘한 겁니다. 불효가 있어서 효가 빛나는 거예요. 불효자가 있어서 효의 값어치를 아는 거죠.

돌담을 쌓을 때는 똑같은 모양의 돌은 필요 없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납작한 돌이 다 필요해요. 우리 사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돼요.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부모들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큰놈은 이런데 작은놈은 저렇더라 하며 비교하지 마세요. 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내놓든 사람으로서 한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고통의 그림자

책과 안경!

은사 스님의 그림자입니다.

2007년 11월 병상에서 《숫타니파타》 책을 갖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밑줄을 그어 가며 한 자 한 자 새기듯 읽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병상 메모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병자 혼자서만 읽는 것이 아니다.

친지들까지도 친분의 그 농도만큼 함께 읽는다.”

이 책과 안경을 볼 때마다 그때 스님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일체지 수행

“선남자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성자는 금강염삼매金剛焰三昧를 얻었고, 크게 정진해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았으며, 탐욕과 애정의 바다를 말리려고 한다.

모든 샅된 소견의 그물을 찢으려 하고, 번뇌의 싹을 태우려 하고, 의혹의 숲을 비추려 하고, 늪고 죽는 공포를 끊으려 하고,

온갖 삼세三世의 장애를 무너뜨리려 하고, 법의 광명을 놓으려고 한다.

우리 범천들이 흔히 샅된 소견에 집착해 스스로 ‘우리아말로 자유자재자이며 주체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이 바라문이 몸을 다섯 군데나 불로 지졌다.

그것을 보고 난 뒤 우리 궁전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여러 선정禪定에서도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바라문에게로 갔다.

그때 바라문은 신통력으로 큰 고행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법을 설해 그릇된 소견을 없애 주고, 교만을 덜어 주었다. 대자大慈에 머물고 대비大悲를 행하며,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발하게 해,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미묘한 법을 들어 온갖 곳에 마음이 걸리지 않게 되었다.”

또 10천 악마의 무리가 궁중에서 하늘 마니보배를 바라문 위에 뿌리면서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몸을 다섯 군데나 불로 지질 때 그 불의 광명이 우리 궁전의 장엄거리를 가려 주위가 칙흑같이 어두워졌다. 궁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자 우리는 권속들과 함께 그의 처소를 찾았고, 이 바라문은 우리에게 법을 설해, 한량없는 천자와 천녀들이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했다.”

이때 선재동자는 이런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바라문에 대해 진실한 선지식이라는 마음을 내고는 엎드려 절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제가 거룩하신 선지식께 착하지 못한 마음을 냈습니다. 원컨대 성자께서는 저의 참회를 받아 주소서.”

바라문은 계송으로 말했다.

어떤 보살이거나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편안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넓고 큰 이익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선재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내던졌다. 떨어지다가 보살의 선주삼매善住三昧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마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를 얻었다. 선재는 말했다.

“성자시여, 심히 기이합니다.

이런 칼산과 불구덩이에 몸이 닿을 때 편안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바라문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무진륜無盡輪 해탈을 얻었을 뿐, 저 보살 마하살은 큰 공덕 불꽃으로써 모든 중생의 그릇된 소견(見惑)을 불살라 남음이 없게 하고 물러나지 않게 하며, 다함이 없는 마음과 게으름이 없는 마음과 겁이 없는 마음으로 나라연那羅延 같은 마음과 빨리 수행하고 지체함이 없는 마음을 낸다. 풍륜風輪과 같이 온갖 정진과 큰 서원을 두루 지니려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사자분신師子奮迅이다. 그 성안에 자행동녀慈行童女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유리창 위의 새

어느 날

아름다운 절에 놀러 갔습니다

차 마시는 방

커다란 유리창에

앞산의 숲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진짜 숲인 줄 알고

새들이 와서 머리를 부딪치고 간다는

스님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하 호호 웃었지만

나는 문득 슬프고

가슴이 짱혔지요

위장된 진실과

거짓된 행복이

하도 그럴듯해

진짜인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다

머리를 박고

마음을 다치는 새가

바로 나인 것 같아서요

실체와 그림자를

자주 혼동하는 새가

나인 것 같아

나는 계속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유훈을 남기셨다.

“진리를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운동 안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본회 초창기부터 시작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 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 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 및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불교 신도 대상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탓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행복과 평안을 주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자의 이름(1인)으로 자비의 등을 달고 있습니다. 모인 성금은 전액 재가 복지 대상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생필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생을 모두 깨달음을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반자일등(貧者一燈)'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자비의 등 달기'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맑고 향기롭게 / 동참금 : 1인 최소 10,000원 이상 (계좌 입금 시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 주세요.)

2022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생' 공모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 20여 명을 선발하여,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넓히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해 본 모임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모임의 장학 사업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781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약 11억 5천여 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서류 심사 : 4월 26일(화)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4월 28일(목) / 본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평가 : 5월 14일(토)

● 장학생 최종 선정자 결과 발표 : 5월 17일(화) / 본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학증서 수여식 : 5월 28일(토)

● 상반기 장학금 지급일 : 6월 7일(화)

● 하반기 장학금 지급일 : 11월 15일(화)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 발행

오디오북 전문 출판 브랜드인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법정 스님이 남

기신 법문 36편을 골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을 출시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이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그동안 보관해 오던 법정 스님의 법문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을 글자로 옮긴 책은 여러 권이지만 스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오디오북은 처음입니다.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상)》은 그동안 글로는 느낄 수 없었던 법정 스님 고유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말이 글로 바뀌면서 삭제되었던 스님의 숨결과 체온을 되살리고 우리들 삶에 대한 스님의 애절한 연민과 간절한 소망까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법정 스님이 여러 곳에서 하신 음성을 담은 것이다 보니, 스님을 바로 앞에서 뵈는 듯한 법문이 있는가 하면 녹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법당 맨 끝자리에서 듣는 듯한 법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장 소음을 삭제하거나 스님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법문 강론 현장에서 듣는 듯한 감동을 오디오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즐겨 들으시던 카잘스 연주곡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자락과 스님이 생동하는 소리라 일컬었던 새소리를 법문 앞에 붙여 오디오북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오디오북의 인세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후 중권, 하권도 출시 예정입니다.

오디오북 전체 러닝타임은 20시간 49분 47초이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유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 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도 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일시 : 5월 8일(일)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받습니다.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춘계 관음기도 회향

일시 : 5월 14일(토)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 하안거 결제 및 백중기도 입재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기도	5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5월 14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5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1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